

시론 IMF 극복의 지혜 ②

현실을 바로 보자

생각하면 참으로 분하고 원통한 노릇이다. 경제를 이끌고 만든 사람은 발을 뺀고 자는데 이런 고통을 몸으로 겪어야 하는 서민들은 발을 오무리고도 잠들 수가 없으니 말이다. 택시를 타고 시정갈 때도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분하다못해 이젠 집단 우울증에라도 걸린듯 보인다.

셋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어떤 형태이건 그럴만한 원인이 있다.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행동양태로선 역시 똑같은 결과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보다 진취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자. 특히 위기를 자초했다고 생각하는 관행적 사고를 바꾸어 보자. 좁게는 개인들의 의식구조를, 넓게는 위정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욕구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지 못하도록 자각적 사고로 바꾸어 보자.

너무 겁먹고 위축되면
가진능력조차 발휘못해

우리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분하고 원통하다고 해서 가슴만 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바로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네 속성은 너무 쉽게 달아오르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만 지나고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니 이번 일도 세월만 지나고 나면 묻혀버릴 그런 일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이근후

(이화대 교수·복지논설위원)

첫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자. 바로 볼 수 있어야 바른 자각을 할 수 있다. 바른 자각은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언제나 위기를 만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왜곡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긴 하지만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는 자기방어 때문에 일어난다. 두렵더라도 바로 보자. 두렵다고 왜곡하면 그 왜곡의 결과는 항상 잘못된 자각일 수밖에 없지 않는다.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과거자같은 이야기라고 들을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자세와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를 자초했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 기초적인 자세가 튼튼한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극복하는 힘이 강하다. IMF라는 타율적 상황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만 이때를 놓치지 말고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둘째, 겁을 먹지 말자. 피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겁을 먹으면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면 선입견으로 인해 가진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린다. 이왕 닦친 일이니 한 번 부딪쳐볼 일이다. 옛날엔 보려고도 넘었는데... 이런 배수진을 친다면 위기는 노력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겁먹고 기가 죽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열린마당

부적신앙

'다라니불교' 잘못 이해 부작용 "자신이 의지할 곳은 자신뿐"

한정섭 (금강선원 이사장)

부적에 대한 모든 문제는 부적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적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 온 것인데, 이 방편자체를 진리로 잘못 알고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난다. 부적은 방편 가운데서도 근기가 아주 낮은 이에겐만 사용하는 하방편이다. 인도에서는 불교이전에서 힌두교의 영향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긴자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것은 태양을 상징해 귀신을 쫓아내는 기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인도에서 다라니불교가 한동안 유행했는데, 그 흔적으로 우리나라 불국사 석가탑에서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라니불교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한 이유는 <근본 대장경>의 가르침은 제대로 배우지 않고 <다라니>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다라니>나 우리불자들이 부처처럼 지니고 다니는 옴나미반메흠 등은 어두운 세계를 밝혀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얻게하는 공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실공덕만을 추구하는데 치우치다보니 이들 <다라니>나 옴나미반메흠 등이 불교를 대표하는 부적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박경준 (동국대교수·불교학)

입멸(入滅) 전 제자 아난에게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에게 귀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말씀은 요점처럼 정신적 의지처로 '부적'이나 '짐'이 유행하는 시기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란 어떤 신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신앙이란 인간이 종교를 통해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에게 구원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절대적으로 의지할 곳이란 없다고 한다.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의 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통해 개발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외부적인 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돌본 마음을 돌 곳 없거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적'이 심리적인 효과와 위안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위안은 수행을 게을리 하게 한다. 즉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참다운 지혜는 사물을 바르게 통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혹되지 않고 바른 마음과 정신을 갖게 해 준다. 그러므로 요점처럼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때일수록 마음을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



집인의 우한·질병을 막아준다는 호신탈식부

옛날 우리조상들은 병이 났을 때 특히 부적의 효험을 믿었는데, 부적을 태워 그 재를 물에 타서 먹으면 열이 내리곤 했던 이유는 부적의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다. 부적의 글씨를 쓰는데 사용되는 영사, 주사의 성분속에 아스피린같은 약물적 성분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다라니 이외에 그 어떤 부적사용도 금지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힘을 갈라 이겨내야지 부적에만 의지해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요행심 조장... 효험없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받을 때 사람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을 한다. 그 의존수단이 부적이다. 대학 수능시험 기간 동안 서울의 백화점에서는 합격 부적을 프린트한 티셔츠가 불타나게 팔리는 등 일시 미신 상풍이 호황을 이뤘다. 청소년들이 자칫 요행과 미신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내 경험으로 미루볼 때 부적이 때때로 약해진 마음에 다소간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효험은 분명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 8일 stv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적을 바랄 뿐이지 그 부적으로 액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쟁이(역술가) 자신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적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위기극복의 방법은 되지 못한다.

법에 의지하여 정진해야

어느집을 방문해보도 부적을 천정에 부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부적이란 것이 말 그대로 그렇게 좋은지 효능도 잘 모르겠고 사람의 마음도 아침저녁으로 변하는데 부적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적 대신 부처님 가피력과 스님의 원력을 믿고 나 스스로 발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자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한다. 내가 다니는 용암사의 현정스님은 부처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신도들이 부적을 만진집에 가서 몇십만원만 주고 사는 경우도 있는 것이 안타까워 직접 만들어 권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설명해 주셨다. 중요한 것은 불자들 스스로 부적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시적 위안등 장점 있어

부적은 악귀와 재앙을 쫓고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징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요즘에도 방송중인 어린이만화영화 '손오공'에서도 삼장법사가 악을 징벌하기 위해 부적을 붙이는 장면이 나온다. 일부 무속인들이 부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도 똑같이 치부해버리는 것은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부적은 효험이 있다. 없다가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부적에 효과가 없다면 굳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든다. 문화의 한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부적의 기원은 단군신화에 서도 보인다. 일연스님 저술인 삼국유사에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의 부적도 나온다. "땡새로 이후로는 공(처용)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이 일로 말미암아 나랏사람들이 처음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를 물리쳐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제2 기이편) 이로 보아 부적신앙이 오래 전부터 행해졌음을 짐작케 한다. 불교에서는 언제부터 부적을 활용했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성행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민기교수(경상대)는 "불교전래와 함께 많은 불상이 조성되면서 주머니에 넣어 지닐 수 있도록 한 호신불이 만들어졌다. 석가탑의 복장으로 넣어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년) 목판본이 가장 오래된 불교 부적"이라고 말했다. 이후 신라의 탈보법사가 신주(神呪)를

기원과 현황

고조선 때도 부적 사용

로써 임금님의 병을 유발한 늑은 여우를 쫓았다는 얘기도 전한다. 또 통일신라 말기의 혜통대사가 자신을 잡으러온 포획들을 그의 주력으로 물리친데서 '혜통부적'이 유행한 적도 있었다. 이로써 부적은 불교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통일신라 말기 밀교에 의해 다라니가 들어오면서 부적신앙도 보편화한 것으로 본다. 요즘에도 부적에 산스크리트어 주문을 써 넣는 것이 있다.

부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재앙 소멸행운반향, 무병장수성취 심지어 '철 때는 부적' 등 1백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부적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나 종이부적이 일반적이다. 10여년 전부터는 고승이 입던 법의 조각을 붙인 부적까지 유행하고 있다. 이런 부적을 대부분 집집마다 판매하나 일부 사찰에서도 정월이면 운수대통 삼재제방 등의 부적을 내놓는다.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염원하며 중생 구제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부적이 최근에는 대량인쇄 공정을 거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성은 기자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전주지사	0591-747-0106
미산·청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중생제도와 구제의 대서원

한방건강 미삼정(彌蔘錠)

보건사회부 허가 제 130 호
창원시 허가 제 48 호

본 미삼정(彌蔘錠)은 무명대사(無名大師 : 1812~1890)께서 중생의 제도와 구제의 대서원으로 오도하여 성문 제 조상의 영험한 비법을 후대에 전수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삼정은 모든 병의 근원인 기(氣)의 흐름을 원활히하여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할뿐만 아니라 체내의 항체,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생활이 가져온 인체의 각종 부작용과 허약화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보강하여 장기복용하면 수복강령(壽福康寧)을 누릴 수 있는 신비의 건강식품입니다.

특징

- 오장육부의 기능조정 및 강화
- 혈액순환 내분비기능 활성화
- 시력, 청력, 사고력 촉진
- 신경계통 장애 개선 및 두뇌기능 완화
- 피로 허약체질 감정·감정 효과
- 병후 회복기 단축
- 노화방지
- 질병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강화
- 심신의 조화와 안정
- 세포 신진대사 촉진

● 전국(시,군) 대리점 모집 ●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스님 및 불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명성사 주지 합장

경남 창원시 북면 하천리 748-1

■ 연락처 : 0551)98-5911
■ 서울사무소 : 02)537-9110, 586-0718

부처님조선·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합장

주요불사실적

- 남한산성 석불사·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양 삼성사·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천 송도선원·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회사·석물조각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7번지

전화: 전시장 (0357) 542-1527 야간 (0351) 874-4685
공장 (0357) 542-1528